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패자부활전에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춤을 추는 지도교사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표정이 간절해 보인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대회는 참가학생 모두가 즐기는 즐거운 퀴즈대회로 진행됐다.

"나란다대회, 진정한 우승자는 '너'란다"

역대 최다 참여 제9회 나란다축제 성료

골든벨 대회 322명 참여
방식 변경에 열기 고조
초반 탈락 막고, 재도전 기회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돼"

"우승자는 결정됐지만, 여러분 모두가 우승자입니다. 함께 불교교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범종을 울린 주인공이에요."

9월 2일 동국대에서 펼쳐진 제9회 나란다축제는 불교계 3대 축제로 불릴 만큼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그 백미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였다. 초반 탈락을 막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열기를 유지하기 위해 방식이 변경된 초등부 결선은 다른 어느 때 보다 더 왁자지껄, 높은 열기 속에 치뤄졌다. 역대 최다인 322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응원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개월 간 사찰에서 공부를 했고 OX퀴즈로 바뀌었지만 1번 문제부터 통과는 쉽지는 않았다. '대웅전에서는 3번 절하고, 관음전에서는 2번 절한다' 는 첫 문제서 30여 명이 탈락했다.

첫 문제서 탈락한 박성려 학생(초3)은 "공부 많이 하고 문제를 열심히 외웠는데 1번 문제부터 헷갈렸다. 떨어져서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참가 학생들의 고비는 이어졌다. OX퀴즈 마지막으로 나온 5번 문제의 '석가모니불의 석가는 깨달으신 분이란 뜻' 이란 질문에 참가자의 절반 가량이 O를, 나머지가 X를 표시한 것이다.

급하게 사회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에게 힌트를 요청했다.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양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였다.

O를 적어들었던 아이들은 스님의 힌트에 급히 X로 답을 고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꿋꿋이 O를 지우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O를 유지해 탈락한 진관사 이준승 학생(초3)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라고 생각해 O를 썼다. 스님이 X라고 알려주셨지만 컨닝해서 맞추는 것보다 답을 유지하는게 맞아보였다"고 소신있는 모습을 보였다.

대회 중반 패자부활전이 예고돼 있었기에 빠르게 탈락한 아이들도 자리를 뜨지 않고 무대를 주시했다.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말똥말똥 눈을 뜨고 집중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패자부활전에서는 재미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사회자는 지도교사들을 무대로 불러 10초간 33배 빨리하기, 댄스 배틀 등을 진행했다. 평소 불교교리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우스꽝스러운 춤에 아이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10초간 33배를 열심히 해 아이들을 2명 다음라운드로 진출시킨 김남수 강릉파라미타 간사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 문제를 실수로 틀려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난 구룡사 5학년 고권 학생은 "선생님이 춤을 춰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 꼭 대상 200만원을 받아 우리 구룡사 친구들 모두 해외여행 보내주고 싶다. 대상을 못타도 같이 참여한 아이들과 동생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범종을 울려라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바뀐 규칙에 따라 최종라운드 20여 명이 남았다. 결선점수 합산제도의 도입으로 아이들은 문제를 틀려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날 대회 1등은 손성원 학생이, 2등 신강민, 3등 정일승, 4등 노승현, 5등 안희준, 6등 최재영 등이 뽑혔다. 하지만 등수와 별개로 모든 아이들이 이날 대회의 우승자였다.

구룡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인우 스님은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것을 싫어했지만 간식시간을 갖는 등 흥미를 잃지 않게했다.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하고 미안했는데 열심히 즐겁게 풀어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종교 떠나 소풍 삼아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절이 재미있는 곳이다' 는 생각을 갖고 친구도 많이 데려올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구례 화엄사에서 온 어린이법회 어머니회 회장 김미란 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 주었다. 4시간 걸려 서울에 왔지만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다. 앞으로 불교계에 이런 축제가 많아져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나란다축제에서는 인터넷 생중계로 '독송대회' 가 진행되고 20여개 체험부스가 동국대 곳곳에 마련됐다. 특히 사찰을 VR로 체험하는 부스를 비롯해 상담부스도 마련됐다.

이날 행사 진행을 도운 이들에게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윤남희 안내도우미는 "평소에도 절에서 어린이 지도교사 봉사활동을 한다. 이번 축제서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나도 일반 참가자로 나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도우미를 자청했다"며 "참여한 사람이 많아서 왁자지껄하고, 같은 불자로서 에너지를 받는다. 불교는 정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나란다 축제처럼 앞으로도 일반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박진형 수습 기자


나란다축제 도전 범종을 울려라 OX퀴즈를 맞춘 참가 학생이 정답이 공개되자 환호하고 있다.


불교문화 홍보 부스를 둘러보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제9회 나란다축제 우리말독송대회 모습.

대한민국 대표
도심형 실버타운
노블레스타워
실버타운이 비싸다는 생각은 잊으세요.
합리적인 관리비로 여유로운 생활과
20여가지의 다양한 매머드급 부대시설을
항상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n-tower.co.kr
실버그룹 One-Stop 서비스
www.n-sangjo.co.kr
당신이 평생 결정한 것중에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 서비스
주간프로그램운영, 여가활동 및 초청공연, 종교활동지원, 주1회 나들이, 국내 · 외 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관리 서비스
고품격 편의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60세부터 즐거움과 90세이후에도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처방사가 개인의 건강과 운동능력을 평가해 재활운동 · 수중치료 등 맞춤처방을 실시하여, 개인별 맞춤 영양식과 식이요법(저당뇨, 고혈압) 등 무공해 식단을 365일 제공해 드립니다. ※ 매주 1회 세대 무료 청소, 식사 룸서비스
온천수영장 (자유수영, 아쿠아로빅, 재활클리닉)
북교관 (매월 2회 조계사 스님 초청 법회)
휘트니스센터 (재활클리닉, 요추부안정화강좌 등)
시네마홀 (영화상영, 노래교실, 각종문화행사 등)
노블레스타워 Noblesse Tower 02)910-6090
미리 준비 못하셨나요?
노블레스상조에서 해결하세요
현대불교신문 특별혜택!
10% off
상품금액의 10% 할인 적용
장례진행 시 일회접객용품 200인분 제공(15만원 상당)
노블레스타워 온천사우나 / 온천수영장 무료이용권 2매
철원 노블레스캠핑장 1박 무료이용권 1매
후불제 상조란
선불제 상조의 단점(회원 납입금의 횡령, 부도, 폐업, 환급거절 등의 폐해)을 보완하여 월불입금 없이 장례를 치른 이후 비용을 지불하여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힌 장례서비스
수의 대마100%
유골함(참나무유골함 · 일봉함/관(나노진공함)
특급 고인전용 장의 리무진
장례행사 전문인력
상조의 품격 노블레스상조 1833-6565
품격높은
후불제 프리미엄
노블레스상조
노블레스상조 검색
TALK 노블레스상조 지금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검색해 보세요.
백마C&L(주) 백마건설(주) · 백마디조트(주) · 백마국제여행사(주) · 노블레스타워부속의원 · 백마호양원 · 노블레스상조(주) · 백마철원농산 · 철원오토캠핑장 · 백마노블레스텔 · 백마아카데미하우스
백마C&L(주)는 실버타운 노블레스타워 운영과 함께 실버푸드, 실버케어, 휘트니스를 비롯하여 요양원, 납골당, 여행사, 상조 등 실버관련 계열사로 이루어진 '실버 전문그룹'입니다